

#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자녀의 생활시간 사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심리적 안녕감

고정원(성균관대학교 소비자교육학과 박사수료)  
이성림(성균관대학교 소비자교육학과 교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어머니의 부족해진 자녀돌봄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사교육, 돌봄시간 등의 투자로 연결되는 지와 그러한 투자가 효과가 있는 지 등의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내에서 지켜지는 경우와 초과근무 하는 경우에 자녀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 확인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취업만의 문제가 아닌, 적정수준으로 근로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학업성취를 높이고 삶의 질 및 만족도, 행복감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 제3차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를 이용, 중학교 3학년의 학생 및 학부모 총 1,38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녀의 생활시간 유형 파악을 위해 k-mean 군집분석과 어머니의 근로시간경도에 따른 자녀의 생활시간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이 중 심리적 안녕감의 척도는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적절성을 파악한 후 사용하였다. 또한, 자녀의 생활시간 유형 및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자녀의 학업성취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녀생활시간은 크게 4가지로 유형화되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여가시간이 전체 평균에 비해 평균일 13.6%, 비등교일 9.9% 많은 여가집중형으로 전체 중 30.9%를 차지한다. 두 번째 유형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수면집중형으로 전체 표본 중 16.0%를 차지한다. 세 번째는 전체 중 25.1%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사교육시간과 개인공부시간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학습집중형이다. 마지막은 다른 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생활시간이 전체 평균 생활시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유형으로 어느 한 시간에 치우치지 않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형으로 전체 중 28.0%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근로시간에 따라 자녀의 생활시간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와 취업도 중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자녀가 학습집중형 및 여가집중형인 경우가 많았으며, 어머니의 근로시간이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집중형의 비중이 작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와 심리적 안녕감 모두 학습집중형, 일반형, 수면집중형, 여가집중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원 및 과외 등 사교육과 개인공부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많이한 학습집중형 외에 일반형 역시 전체 평균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시간, 여가시간 등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자녀의 학업성취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 어머니의 근로시간 및 자녀의 생활시간 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근로시간 및 자녀의 시간사용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자녀의 시간사용유형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에는 자녀의 생활시간 유형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에 따라 자녀의 시간사용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할 때에 자녀의 학업성취 및 심리적 안녕감에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자녀의 시간사용유형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근로시간에 따라 자녀의 생활시간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밝히고, 자녀의 생활시간사용에 따라 학업성취 및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특히, 비취업도 및 정상근무시간 수준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에 자녀는 학업성취 및 심리적 안녕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학습집중형인 경우가 많고, 어머니가 초과근무하는 경우에는 학습집중형의 분포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근로시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야근, 초과근무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의 생활시간이 수면이나 여가에 집중될 경우 학업적인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가 시간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취업자체의 영향보다는 자녀의 생활시간사용 유형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녀가 생활시간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어머니의 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을 포함했다는 가정하에 분석한 결과 자녀의 생활시간이 24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아 이통 및 수업시간 등에 대한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제한점이 있다.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한 시간 사용 측정으로 다양한 부분의 시간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